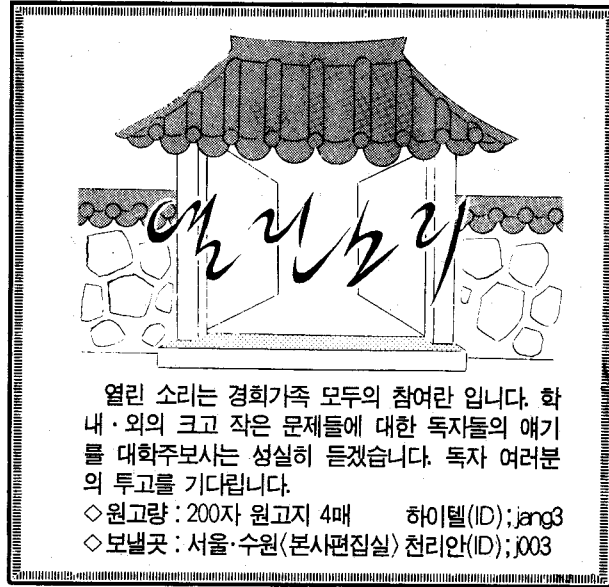


경희발전기금 출연내역 및 명단

“21세기를 준비하는 경희의
합찬 발걸음”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하
드립니다.
기탁자 명단은 정수순입니다.
(1995.3.28~1996.2.28)
△LG반도체 10억
△교보생명 1억
△충동문화 BC카드 기금
5백53만원
△경영대학원 제5기 최고경영
자 과정일동 3백만원
△하운문(의학과) 2백만원
△김미애(기악과) 2백만원
△송인병(한의학 교수) 2백만원
△이의영(경희국교장) 1백만원
△김영목(기악과) 2백50만원
△김동주(작곡과) 5백만원
△안정수(교육대학원 교수)
2백만원
△최재승(경의과 동문) 1백만원
△배형섭(한의학 교수)
1백20만원
△송성진(회계학 교수) 2백만원
△교육대학원 1기 영어A반 일
동 10만원
△유승희(교무처장, 2차분)
2백만원
△왕종범(총무과) 50만원
△이봉주(무역과교수) 2백만원
△김영중(총무과) 1백만원
△전영중(경영과교수) 2백만원
△김인진(법학과23회졸) 한국중
권거래소 30만원
△여재권(경희교 교사) 30만원
△이환호(밝은사회문제연구소
교수) 2백만원
△신대순(밝은사회문제연구소
교수) 2백만원
△황군향(경희여중) 20만원
△노수현(경희초교 서무과장)
50만원
△서문길(경희여중 서무과장)
50만원
△서용남(경희여중 서무주임)
30만원
△김기봉(경희남고 경리주임)
30만원
△이관식, 신해숙(국문과 동문)
50만원
△현대산업개발 동문 4백15만원
△위성원 동문회 1천달러
△박지남(경희고 교사) 50만원
△박영삼(경희고 교감) 50만원
△백원기(경희고 교사) 20만원
△이종권(경희고 교사) 30만원
△장종득(경희고 교사) 30만원
△김형식(경희고 교사) 30만원
△임문규(경희고 교사) 30만원
△김근식(경희고 교사) 30만원
△박종현(경희고 교사) 30만원
△전용일(경희고 교사) 30만원
△임계현(경희고 교사) 30만원
△최재원(경희고 교사) 30만원
△손광훈(경희고 교사) 30만원
△김장진(경희고 교사) 20만원
△신강식(경희고 교사) 20만원
△박성택(경희고 교사) 20만원
△김창현(경희고 교사) 20만원
△박종일(경희고 교사) 20만원
△이관중(경희고 교사) 20만원
△황인태(경희고 교사) 20만원
△박숙환(경희고 교사) 20만원
△김희철(경희고 교사) 20만원
△임병기(경희고 교사) 20만원
△정태철(경희고 교사) 20만원
△양경부(경희고 교사) 20만원
△김진성(경희고 교사) 20만원
△정태철(경희고 교사) 20만원
△김원성(경희고 교사) 20만원
△윤희정(경희고 교사) 20만원
△이기섭(경희고 교사) 20만원
△김효준(경희고 교사) 20만원
△김동만(경희고 교사) 20만원
△변일우(경희고 교사) 20만원
△박봉재(경희고 교사) 20만원
△류계우(경희고 교사) 20만원
△남광현(경희고 교사) 20만원
△김기수(경희고 교사) 20만원
△유도진(사회학 교수) 3백만원
△이주리(경희고 교사) 20만원
△김금희(경희고 교사) 20만원

사대스피커 음질불량
설치이후 보완 필요

입학할 당시에 나는 가파르
고 길고 유영한 사대대의 언
덕길을 올라야 한다는 것이 고
통스럽게 느껴졌으며, 등산하
는 기분인 정도는 힘들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푸른 나무들의 울창함과 맑은
공기 사대길은 칸타가 걸던
사유의 길처럼 나에게 작품을
구상하거나 드로잉을 하는 장
소가 되었다.
그런데 2학기 들어 사대길에
생소하기만 한 대학의 소리 방
송국(VOU)의 스피커가 설치되
었다.
방송국에서 사대대 학우들
에게 가까운 이미지로 다가서
고, 학내정보를 갖가지 방송을
들려준다는 차원에서 반대할
여지 없이 고맙고 반가운 일이
들었다.
그러나 이 방송국 스피커에
서 나오는 소리가 나쁜 아니
라 사대대 학우들에게 소음으
로 들림으로써 피해를 주고 있
다.

설치된 스피커가 고장이 나
서인지 '지저직'거리는 잡음이
많이 들린다. 그래서 나는 작
품을 구상하다가도 집중도가
떨어져 자주 일을 중단하게 된
다. 솔직히 스피커가 없었던 옛
날 사대길을 되돌려받고 싶은
마음이 굴뚝같다.
하지만 이런 불만을 토로하
는 친구들이 한두명이 아닌데
다, 정보 제공의 효율성 때문
에 있어야 마땅할 스피커가 미
래의 예술가, 교사들이 다니는
길목의 소음기로 받아들여진단
면 과연 있을 필요가 있을까?
스피커를 고치든지, 아예 폐
어버린단든지, 소리를 줄인단
지 등의 조치가 필요할 것이다.

문 유 석
(미교 1)

“밤길이 무서워요”
시급한 대책마련 필요
교정이 아름다운 학교에서
생활한다는 것은 참으로 즐거
운 일이라 생각한다.
그러나 우리 학교는 밤이 되
면 그 아름다움이 공포(?)로

바뀐다. 본관에서 교문까지 가
는 길이며, 언어교육연구원에서
사범대로 가는 길이며, 밤이 되
면 교정은 한치 앞도 보이지
않을 정도로 캄캄하다. 학생들
이 채 귀가하지 않고 남아있는
데도 가로등을 켜놓는 것은 학
생들의 안전을 등한시하는 처
사이다.

지난 여름방학동안 신문지상
을 통해 한 학생이 두 학생
인가가 어두운 사범대 교정
에서 치한의 흉기에 찔려 중상을
입은 사건이 있었다는 것을 알
게 되었다. 그 기사를 읽고 늦
은 시간에 귀가하는 일이 많은
나는 섬뜩하기까지 했다. 인권
복지위원회에서 순찰을 서는
등의 안전조치를 취하고 있긴
하지만 그것이 실제로 학생들
의 안전에 미치는 영향이란 미
미할 뿐이다.
학교측에서 늦은 시간에 학
교에 남아 있지 않으면 되지
않겠나만 태도를 보인다면 달
리 할 말은 없지만, 사람 일이
라는 게 이런 일도 생길 수 있
고 저런 일도 생길 수 있지 않
은가.

손 금 영
(국문 1)농활참가 결석처리 부당
결석사유로 인정해야

가을을 맞아 각 과별로 농활
을 떠나는 시기이다.
농사활동을 하기 위해 농촌
으로 떠나는 것이 학칙으로 규
정되어 있지는 않지만, 이것은
대학가에 관습처럼 되어오고
있다.

여름 농활이나 겨울 농활은
방학을 이용해 많은 열혈이
넘는 기간동안 다녀오기도 하
지만, 봄·가을 농활은 학기 중
이라는 이유로 문제가 많은 것

이 현실이다.
원칙적으로 학교측에서는 학
생들의 농활을 정당한 강의 불
참 이유로 인정해줄지 않기 때
문에 뜻있는 학생들은 결석처
리를 당하면서까지 농사활동을
떠나곤 한다. 이런 일이 한해
두해로 그칠 일이라면 몰라도
대해 같은 상황이 벌어짐에도
아무런 대책이 없다는 건 확실
한 문제이지 않을 수 없다.
농활때문에 강의에 불참한
학생에 대해 어떤 교수님들은
그냥 눈감아 주시기도 하지만
그렇지 않은 교수님들이 더 많

다.
게을러서 결석하는 것도 아
니고 대학시절이 아니면 경험
하기 어려운 '농사'라는 가치있
는 일을 하기 위해 결석하는
학생들을 결석으로 간주한다는
것은 부당하다고 생각한다. 농
사활동을 하면 학점까지 주는
시대에 결석처리가 타당할 수
있는가. 학교측은 학생들의 농
촌활동이 보장되도록 적극적인
배려를 취해야 할 것이다.

김 회 수
(국문 1)

고 — 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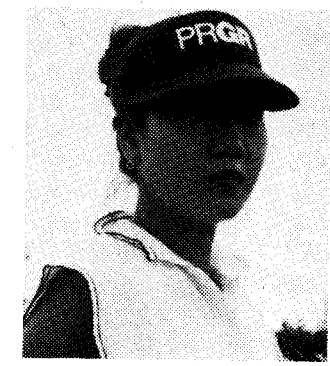
지난 1102호(9월23일자) 1면
머릿기사중 '경제학과와 무역학
과는 '국제통상학부'에서 '국
제통상학부'를 '경제통상학부'로
바road잡습니다.
또 같은면 한의대 기사중 21
일을 17일로 7면 전학대회 기
사중 인복위원장장선 2학기 시
행 유보는 2학기 선출확정으로
바로잡습니다.

인터뷰

“지난 시절 고통 현재의 큰 도움”

로즈오픈 골프대회 우승자 강수연(체과대 체육 2)

“심한 팔부상을 당한 상
항에서의 3개월은 저와 가족들
에게 매우 견디기 힘든 시간
이었습니다. 다시 부상을 당
하고 나니 클럽을 잡고 싶
다는 간절한 마음으로 변했을
정도니까요.”라며 로즈오픈
골프대회 우승자인 강수연(체
육·2) 양은 우승 소감을 애
기한다.



강수연의 팔부상은 현재 시
합에 큰 어려움이 없을 만큼
치료를 본 상태이다.
초등학교 시절 스케이트 선
수에서 골프선수로 전향한 그
녀는 세화고 시절 국가대표
로 활동하는 등 순조로운 골
프인생을 걸어왔다. 그러한
그녀에게 팔부상은 골프선수
로서는 치명적이었다. “치료
되리라든 희망과 주위의 도움

이 없었다”면 지금의 자신은
있었을 거라며 금세 어두운
표정을 지었다.
빠듯한 선수생활 중에도 스
키와 당구를 즐기는 적극적인
고 사교적인 성격인 그녀는
프로전향에 대해 당한 이즈로
“학교측과의 협의가 마무리되
면 내년쯤이라도 프로로 전향

하고 싶다.”며 자신의 의사를
당당히 밝힌다.
세계적인 선수로서 외국에
서 활약하고 싶다는 강양은
“노력하면 안될 일이 없다는
말을 우리학교 학생들에게 꼭
해주고 싶다.”며 미소를 지었
다.
“앞으로 저의 선수생활을
관심어린 눈으로 지켜봐 주세
요.”라는 말 또한 잊지 않았
다.
세계적인 선수들속에서도
당당함을 잃지 않았던 강수
연. 새롭게 시작되는 골프인
생에서는 어떤 활약으로 이름
값을 할지.
그녀는 오는 11월 필리핀에
서 열리는 골프대회에 출전할
예정이다.

〈김용운 기자〉

朔風

스트레스의 한국정치, 도산이 두렵다

스트레스란 말이 생긴지는 얼마나
됐을까?
어릴적에는 스트레스란 말이 무엇
인지도 모르고 살았던 기억이고 보면
그리 오래 되지는 않은 모양이다. 하
지만 최근에는 아동은 물론 유아 스
트레스까지도 연구의 대상이 될 정
도로 스트레스는 생활의 한 부분이 됐
다.

스트레스의 증세는 여러가지 형태
가 있지만 대체로 흥분 또는 무력감
의 극단적 형태로 나타난다. 최근 우
리가 가지고 사는 스트레스가 얼마나
엄청난지의 문제는 사회 현상으로
증명된다.

‘홍분’의 증세는 술소비의 급증과
각종 격렬한 폭력 범죄의 증가로, ‘무
력감’의 증세는 국제경쟁력의 약화와
생산성의 저하로 나타나고 있다는 분

석도 있다.

그리고 보니 당면한 한국적 위기상
황의 증상들이 상당부분 국민들의 스
트레스와 연관이 있다는 생각이 든
다.

한국적 위기상황을 극복하려면 아
마도 스트레스에서 원인을 찾아보는
것도 한 방법일 수 있겠다.

국민의 스트레스는 어디에서 생

기는가?

아무래도 ‘정치’인 것 같다.

아무날 아무술집에 가서라도 좋다.

술마시는 사람들의 대화를 유심히 들

어 보자.

온통 정치 이야기 뿐이다. 어찌보

면 모두가 불평 불만주의자 들인 것

처럼 비춰질 정도이다.

어떤 정치인이나 학자들은 우리나라

국민의 정치수준이 낮다고 평하곤

하지만 수준은 몰라도 관심 만큼은

아마 세계 최고 수준일 것이다.

국민들이 자신의 개인 문제보다 정

치의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있으니,

에너지는 한계가 있고 결국 자신의

업무에 최선을 다 할 수 없게 된다.

외적 스트레스의 가장 심각한 자극형

태가 아닐 수 없다.

그렇다면 잘하는 정치는 무엇일까?

식상한 질문이지만 대답은 복잡할 수

밖에 없다. 하지만 최소한 오늘의 현

실속에서는 ‘국민에게 스트레스를 주

지 않는 정치’가 정답이 아닐까 한다.

우리의 현실 정치는 너무나 많은

고민과 그에 따른 스트레스를 국민에

게 떠 넘기고 있다.

올화통이 터질 정도의 극심한 교통

체증, 믿고 마실수 없는 수도물, 비상

상태인 군내부에서 벌어진 탈영과 동

료에 대한 총기난사, 소극적인 외교
정책, 내우외환의 상태에서도 그칠줄
모르는 권력만을 지향하는 정치인들
... 이루 말할 수 없는 많은 스트레스
에 우리는 짓눌려 있다.

결국 우리의 이유있는 기하급수적
인 술소비 증가는 계속될 전망이다,
스트레스로 인해 생산성이 오를 리
없으니 불황은 지속될 수 없다.

국민들은 평범해지고 싶다.
복잡한 정치를 안주삼아 강소주를
마시고 싶지 않으며, 코미디 프로를
보며 자연스럽게 웃고, 신바람 나게
자신의 일에 재미를 느끼며 살고 싶
어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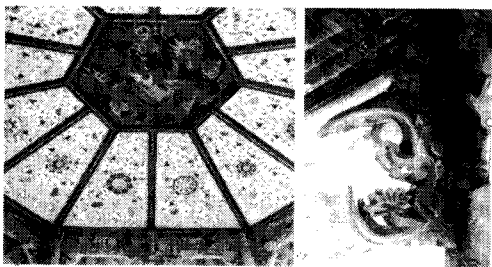
정치가 따지고 보면 사업이고 서비

스가 그 요체이다.

고객에 대한 배려가 없는 서비스

산업의 종말은 결국 도산이다.〈獻雨〉

POSCO메시지 연화편



▲ 의상대(義相臺) 천장과 기둥
6간을 기본으로 두리 기둥을 세웠으며,
낙산사를 가까이 두어 섬세한 문양이나
단청이 사물의 건물처럼 배어 있다.

‘씨앗을 심고
정자(亭子)를 바라본다’

처음엔 작은 씨앗에 불과하지만 세월이 흐르면
아름드리 낙랑장송으로 자라납니다.
소나무 씨앗을 심어놓고 사람은 그 재목으로 지을
정자(亭子)를 생각합니다.

식송망정(植松望亭) —
초석을 놓을 때 이미 완성된 집을 상상하는 사람 —
작은 일도 큰 일을 바라보고 해야 한다는 옛성인의
이야기는 열린 세계를 앞두고 가능성을 키워가는
우리 청년들에게 귀감이 되고 있습니다.
한 줄의 글, 하나의 체험도
여러분의 미래를 위한 소중한 씨앗입니다.

세계제일의 철강기업—

포항제철